

호주 시 학회에 다녀와서...

12 월 4 일부터 13 일까지 긴 여정이었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하여 케언즈로 가는 계획이었으나 비행기의 엔진 결함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홍콩에서 1 박을 하고 호주의 멜버른까지 갔다가 6 일 드디어 케언즈에 도착했다. 호주 최대의 관광지라던 진혁형의 말과는 달리 케언즈는 인구 3 만의 작은 휴양도시였다.

7 일, 이날은 ASPGP 워크샵 발표가 있는 날이다. 행어나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하여 비행기 안에서부터 전날 저녁때까지 발표 준비를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첫 영어 발표를 하러 학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장을 준비해 오라고한 진혁형의 말에 나는 준비해온 정장을 입고 갔으나 나를 제외한 다른 어느 누구도 정장을 입고 온 사람은 없었다.



아직 영어가 서툴러서 논문 발표할 때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행인지 불행인지 특별히 복잡한 질문은 나오지 않고 간단한 질문만 나와서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럭저럭 잘 발표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의 발표도 열심히 듣고 질문할 점들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발표 내용 쫓아가기에 급급하여 질문을 하지 못해서 못내 아쉬웠다.

워크샵 발표 후, 진혁형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도 좀 사귀고 영어도 좀 써보려 노력했으나, 내성적인 성격에 영어까지 따라주지 않아서 대부분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말은 몇 마디 하지 못했다. 8 일부터 10 일까지 있었던 호주 시 학회에서는 소프트 컴퓨팅, 에이전트 관련 세션에 들어가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으나, 물론 발표논문에 대한 준비를 많이 안해가서 이기도 하지만, 발표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발표가 종종 있어 생각처럼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다.



학회가 끝난 후에는 케언즈에서 그린아일랜드에 들러 산호바다를 둘러보았고, 시드니에서는 시내 구경과 본다이 비치를 들렀다. 물속이 흰색 내비치는 투명한 산호 바다(그린아일랜드)와 높은 파도(본다이 비치)가 인상적이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나의 영어 실력의 현 위치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 상태로 학업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있는 영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촉매로 작용하기를 바란다.